

“국제연맹 직업 및 전문직업 여성대회에 참석하고 나서”



경북지부장 김 정 선

금번 국제 대회에 참석하여 보고 들은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본 대회는 1971년 7월 5일—10일까지 Canada에서 International Federation of Business and Professional Woman 이란 제복하에 오후 2시 소녀단원들이 주악에 맞춰서 각 나라 국기를 들고와서 단상 앞에 차례로 꽃았으며, 우리나라의 국기가 들어올때의 그 짜릿한 감동, 정말 무한한 감개가 온몸을 휩싸 안았다.

38개국의 참가국가의 대표와 방청객, 도합 1251명이었고 그 중 우리 대표는 6명, 방청은 1명이었다.

5일간 회의를 계속하는 동안 회원들은 매우 긴장하고 정숙한 편이었으며 누구하나 지루하고 피곤한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회의 사항은

1. 여성들의 자원인 인력을 발전시키는 일.
2. 여성들의 교육, 사회적 책임과 취업과 우선권에 있어서 남녀 동등권.
3. 경제와 사회문제.
4. 국민학교 교과서와 교육, T.V. Program 이상의 문제 등의 보고와 논의가 있었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들을 논의 하였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자신을 발전 시키되 내 자신을 위하여만이 아니라 내 국가, 사회, 이웃을 위해 발전 시켜야 될 것을 격려했다.

회의중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회원들의 긴장한 태도와 회의 진행이 매우 엄격하고 질서있게 진행되는 것은 물론, 각국 대표들이 자신의 나라의 위신과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서로 조심하는 빛이 역력했다.

한가지 기쁜 사실은 만찬회나 사교시간에 우리나라의 옷이 여러나라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뿐만 아니라 옷이 매우 예쁘다고 하여 사진도 많이 찍혀졌다.

회의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내나라의 명예를 위하여서는 말과 행동을 극히 조심하여 나의 조국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될것을 다시한번 느꼈다.